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생터사랑들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복지선교회 소망의샘터



21037/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1 KT&G 408호 (계산동 935-6)
T.(032)541-4737 / F.(032)541-4738 / <http://www.ever.or.kr>

2020 복호 CONTENTS

03
위기(emergency)를 기회(opportunity) 로 삼자/대표회장 최희용

04
2019년도 후원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을까?

05
NEWS/대한적십자사 금장 포장

06
장애우시설 /
2020년 새해에도 사랑과 온정이 소망의샘터를 통해
풍성하게 샘물처럼 솟아 오르기를.

07
하루게 다르게 느껴지는 힘겨움으로 /출소자시설

08
우리모두 화이팅! / 사랑의집에덴

09
우리모두 화이팅!
나눔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내요.

10
샘터이야기 / 새식구

11
샘터이야기 / 돌봄활동

12
봉사이야기 #1

13
봉사이야기 #2

14
각 시설 위치도



위기(emergency)를 기회(opportunity)로 삼자.

대표회장 / 최희용

년초 부터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동서를 막론하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 역시 전국적으로 역병의 감염으로 인하여 수천에 이르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고, 또는 사망에 이르고있으며 국내,외 시장은 마비되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지속 되고, 마스크를 사기위해 새벽부터 수백미터씩 줄을 서야하고, 번호표를 받고 매입하는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여 비상이 걸린 시국!

주서(周書)에 등장하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4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위기를 맞이할 때 잘못됨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으로, 태조가 위기를 맞아 나라를 안정시켜 그 위엄과 권위가 왕을 두렵게 했다(太祖 扶危定傾 威權震主)는 문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 「 윈스턴 처칠 」은 ‘비관론자들은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러나 희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매번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회를 얻게 된다.’ 고 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실례로 독일의 유대가정에서 태어난 「 리바이 스트라우스 」는 미국에 이민하여 뉴욕의 주택을 돌며 직물 판매하다, 1853년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여 금광 주변에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군납 알선 업자가 10만여 개 분량의 대형 천막 천을 납품하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뜻밖의 행운을 잡은 「 리바이 스트라우스 」는 큰 빚을 내 공장과 직공을 늘리고 밤낮으로 생산에 몰두하여 주문량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납의 길이 막혀 버려서 천막천은 모두 쓰레기가 될 위기였고, 그는 파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주점에 들렀다가 금광 촌의 광부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헤어진 바지를 꿰매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바지 천이 모두 닳았군, 질긴 천막 천을 쓰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텐데.... ’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두꺼운 천막천을 잘라 기워 최초의 청바지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청바지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 천막 천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바이스’ 청바지로 재탄생 된 것입니다.

「 리바이 스트라우스 」에게 위기는 커다란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직면합니다.

현인들은 위기(emergency) 와 기회(opportunity)란, 동시에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위기를 막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끝이 보이는 터널로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현재 당하고있는 총체적인 외우내환(外憂內患)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이겨내야하며, 아울러 빠른시일 내 종식되어 모두 평범했던 지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하신 후원자님들의 건강한 일상을 기원합니다.

2019년도 후원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을까?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마음으로 보내주신 후원자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나눔으로 장애우시설, 출소자시설, 근육병환우시설과 독거노인가정 서른아홉 가정에 정기적인 생활비와, 적십자를 통해 위기가정 열 가정에 정기적인 생활비, 인천시청을 통해(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 위기가정 서른셋 가정에 정기적인 생활비, 그리고 월드비전을 통해 위기가정 열 가정에 7월까지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였으며, 인천소재 초원교회에서 도시락이 없는 주말에 노숙자 및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산소재 장애우 시설

나인석	김용우	정대원	박종상	이우진
한상빈	박현상	성미경	장근수	김춘기
권혜원	김다혜	김소선	성슬기	한지선
신은주	최명란	장보배	최성란	김영자
김미라	홍환희	최원희	장향진	



파주소재 출소자 시설

김민수	이병태	이경복	김현승	김대홍
서주영	손상열	김순섭	김혜심	이신재
허 휘	김형태	김영태		



인천소재 근육병환우시설

한재일 권정혜 정현재

인천소재 초원교회에서

주말에
노숙자, 독거노인 급식



김포와 인천에 분포되어 있는 독거가정

윤정빈	김동오	김덕선	강상규	조태봉	김억두	차 영	최정자
김학규	장정규	유은미	정용기	이길우	황정오	김상운	김요지
김요한	곽병채	신자섭	함영준	조흥준	김숙자	김창열	이태선
권일주	김순남	홍순민	박순여	김점순	차계옥	안상만	정용기
정애영	민월분	장진애	허필전	김옥례	정순녀	정길웅	

NEWS 대한적십자사 금상 포장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선생님들의 뜻에 따르는 나눔을 실천하다 보니 적십자사로부터 금장포장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발급되었는데 바빠서 이제 수여한다고..., 코로나19로 모두가 이대로 멈춰 버릴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로 한치앞도 예측이 어려운 요즘, 밖엔 따스한 봄 기운으로 개나리,진달래 꽃망울이 눈이 부시게 점점 피어나고 있는데..., 두문불출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 아이들 학교도 학원도 일터도 식당도, 마트도 멈춰섰습니다. 심지어 아파도 병원 가기도 망설여집니다. 보는뉴스, 읽는뉴스 모두다 코로나로 장식 되어 코로나 스트레스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 하지만 잠시 멈춰선 지금.., 일상의 소중함과 고마운 선생님들의 아낌과 애정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더더욱 짓게 새겨봅니다. 또한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지치지 마시라는 응원을 보내며 마스크 벗고 마주보고 밝은 얼굴로 웃을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잠시 멈춰선 지금!!
뜻하지 않은 여유로움으로
일상의 소중함과 고마운 선생님들의
아낌과 애정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더더욱 짓게 새겨봅니다.

2020년 새해에도 사랑과 온정이 소망의샘터를 **장애우 시설** 통해 풍성하게 샘물처럼 솟아 오르기를...

2019년의 마지막날 입니다.
 한해동안 늘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샘터지기님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후원자 선생님들께~
 방명록을 통해 저희 사랑의집에덴 모든식구의 마음 담아 인사를 드려봅니다.
 지금 사랑의집은 봄,여름,가을로 알록달록 풍성했던 텃밭과 대문밖 너른 황금들녘도 사라진 황량한 겨울 시골의 풍경이 쓸쓸히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은 지나가는 2019년을 추억하며...
 오랫동안 소망의 샘터 갤러리를 처음부터 차근히 열어 보았어요^^

**정말 소망의샘터에는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했고...
 차별없이 그 주인공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주는 따스한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저희 사랑의집에덴의 젊고 푸르렀던 과거와 샘터지기님들과 함께 행복을 노래하는 현재와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참 반가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사랑과 온정이 소망의샘터를 통해 풍성하게 샘물처럼 솟아 오르기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어둡고 외롭고 힘든 모든 곳을 찾아 밝혀주시는 귀한 등불되시는 소망의샘터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축복 가득하시길 밝아오는 새해 첫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체가 폴더처럼 접혀진 채로 굳어있는 다해가 체했는지 위에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토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임을 직감하며 걱정에 쌓인 원장님과 사모님....



아픔마음 달래며 눈길을 걷는다.
산밑 험터주변이 군데군데 빙판길이 미끄럽다.
이어폰을 끼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조심스레 산책하며 상열이를 생각한다.

식사시간 식당으로 형제들이 하나 둘씩 들어온다.
누구보다 일찍 내려와 밥을 기다리던 상열이가 마지막에 식당 문턱을 힘겹게 넘어오는 모습이 안쓰럽다.
예전에 환청이 들릴때면 귀에 담지 못할 욕과 말을 지어내 식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곤했다.

그러나 요즘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동으로 형제들과 잘 어울리며 생활에 집중한 듯 했다.
식사를 마치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형제에게 영문을 물었다. 주영이와 싸웠다는 것이다.
형제들은 겨울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목욕을 마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목욕 순서도 형제들이 정하여 목욕을 한 듯 하다.
그러나 상열이 순서에 경북이와 주영이가 목욕을 해서 싸움이 시작 되었다고 했다.

주영이를 불러 싸움 경위를 물었다.
“목욕을 하라고 했더니 한다 안 한다 말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할 일이 많아 경북이를 씻기고 내가 하 려는데 지가 먼저 해야 된다고 해”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상열이는 주영이와 싸움을 하면 역부족이다.
주영이를 힘으로 대항 할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주영이가 싸움꾼은 아니다.

착하며 순하고 말없이 집안에 힘든 일은 싫다 하지 않고 불평불만 없이 행동하며 실천하는 형제다.
다만 고집이 세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하고 타협이 전혀 안 되는 모자람이 있는 친구다.

왜? 그랬니 안타깝게 질문을 주영이에게 했다.
목욕시간도 지키지 않으면서 늦게나와 경북이 형을 씻기고 본인이 하려고 옷을 이미 벗었는데 자꾸 나오라고 해서 싸웠다는 것이었다.

경북이는 환갑이 넘었으며 50대 초반에 시력을 잃어 일상 생활을 같이하는 주영이가 부부나 형제 보다도 더 세심함으로 눈물 나게 보살피며 대,소변도 가려주고 있다.
누구 한쪽 편을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겨울에도 찬물로 주방일을 하시는 원장님의 손은 동상과 습진으로 두터워져 있습니다.

◀최옥숙 원장

경북이는 환갑이 넘었으며 50대 초반에 시력을 잃어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주영 이가 부부나 형제보다도 더 세심함으로 눈물나게 보살피며 대,소변도 가려주고있다.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일어 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서로가 조금만 이해 하면 될 일들인데 서로 이해를 못해 집안이 시끄러울 때가 가끔 일어나고 있다.
식사를 마치고 말 없이 돌아가는 상열이의 뒷모습을 보니 안타까움과 측은함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상열이가 입소한지가 10여년이 다 되어 가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 겪으며 풀 죽어 의기소침해진 모습이 안스럽기까지하다.
마약으로 어렵게 살며 죄의 댓 가를 치른 후 의정부 교도소출소 후 이곳으로 입소하여 참기 어려운 마약을 끊으며 열심히 살아온 상열이.몇 년 전만 해도 힘이 황소였는데 60이 넘으니 이제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이빨 빠진 사자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눈길을 걷는 동안 허리가 아픈지 뒤통거리며 걸 지도 못하는 상열이의 모습이 자꾸 어른거린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이제 나도 형제들을 보살피 주기에 힘이 겹다.
이직도 할 일은 많은데..

좀 더 보살피주고 몰랐던 새 삶 찾 아주며 많은 것을 더 해줘야 하는데....하루게 다르게 느껴지는 힘겨움으로 마음이 무겁다.

우리 모두 화이팅!!

소망의 샘터를 지키시는 선생님과 모든 후원자 선생님들!
요즘엔 우리 모두 건강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절실히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에덴도 그 어느때보다 쓸쓸하고,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곳곳에 비치해 두고, 외부인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려고 우체통을 사랑의집에덴 정문밖에 비치하여 우편과 택배도 따로 받고 있는 등등...

원장님, 선생님, 에덴가족 모두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기운을 주시는 샘터지기님들의 반가운 방문 일정도 모두 연기되고 코로나19의 확산이 끝나고 안정될 그날만 막연히 기다리는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바이러스가 저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씩씩한 힘을 내야겠지요.^^

참!!!!

사랑의집에덴에는 샘터지기님들께 자랑하고 싶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여 선생님 천국에 씩씩한 남자 선생님께서 등장 하셨거든요.^^

가~장 신나하는 에덴 가족은 바로 우진, 용우, 현상님이에요.

외부 출입통제로 조금 답답한 분위기를 새로 오신 김선생님이 면역력 증강을 위해 매일 운동시켜 주시고, 재활체조 시켜주셔서 식구들 모두 행복 행복해~~^^

답답한 요즘 일상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쨍하고 비추는 주는 느낌입니다.

샘터선생님들 기쁘게 방문해주실 그날을 손꼽아 고대하며...

저희는 열심히 힘내고... 이 시기를 잘~극복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나눔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저희 소망의샘터는 관내 계산2동 행복복지센터에 힘을 보탰습니다.

당 사무실에 인사차 들른 센터장님은 행정적으로 손길이 닿지 않는 비수급자들의 건강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었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직접적인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물품들이 전달되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빠듯한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겐 단순한 전염병이 아닌, 생계를 위협하는 절벽과 같은 일입니다.



새/가/족

정순O 할머니

관내 구립 계산노인복지센터 생활관리사님의 독거 가정 지원을 위한 간곡한 요청으로 할머니덕 첫 방문 날!

현관문을 열고 주방에 들어서 발이 닿는순간 냉기가 온몸을 짜~악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방은 따듯하겠지...?

하지만 안방역시 할머니 앉아계시는 자리에만 전기담요에 이불깔고 바닥은 언제 불을피웠는지도 모르게 차디찬 냉골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노인연금받아 방까지 따듯하게 지내기엔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시며 이렇게라도 지낼수 있어 감사하다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정길O 할아버님

10여년을 할머니 병간호에 매달리다 지난해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시고 혼자남은 할아버님, 그나마 집은 LH공사에서 임대한 아파트에 450만원 내고 월세없이 살수있어 집 부담은 덜었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노인연금으로만 살아가기엔 할아버지의 생활이 궁핍하기 말할수가 없어요.

가지고간 음료를 냉장고에 넣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보니 간장하나만 달랑있네요.

도시락 배달되면 하루종일 굶었던 배를 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님 저희 샘터 가족이 되신걸 환영합니다.
올해 더 많이 웃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활/동

어떤 재난이 위협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구성원의 연대와 연합만이 재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

지난 설명 절엔 독거어르신들에게 세뱃돈을 봉투에 담아서 드리고 봉사자들이 세배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으로 지원금을 보내고 있지만 통장으로 받으시면 은행에 꼭 가야하니 현금이 좋다고 하세요.

어르신들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쓰니 그렇겠죠. 기관마다 설 명절 떡국도 함께 나누었고, 보름날 독거노인택에 먹거리도 준비 해 드렸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란놈이 일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지금은 돌봄활동을 모두 접어둔 상태 이구요.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출근걱정, 영업걱정이 아닌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 하지만 어떤 재난이 위협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구성원의 연대와 연합만이 재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하네요.

관련해서 우리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이해하고 실천 한다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져 모두를 반갑게 만나게 되겠지요.

부디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별일 없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출소자지원, 그건 결국 사회전체를 위한 것
이라고...**

법무부가 발표한 범죄 재범률은 약 23%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년에 약 2조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온전히 출소자들에게만 대출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다고 하네요.
죄지은 이들을 왜 지원하느냐? 라는 물음엔 이들을 지원하지 않아서 재범률이 높아지면 사회가 피해를 입으며, 그러므로 지원 혜택은 결국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출소자지원, 그건 결국 사회전체를 위한 것
이라고...



몇 년전인가 크리스마스파티를 하러 아산 사랑의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그 후로 겨울이면 운전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더더욱 시골길에 대한 트라우마는 더 컸습니다.
그후로 겨울엔 절대로 절대로 눈길을 달리지 않았습니
다. 올 겨울엔 유난히 따스함으로 눈조차 내리지 않았지만..
아랑곳 않고 겨울잠 자는 동물들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
다. 그러다가 2.14일!

자책이라도 하듯이 코로나19로 세상이 뒤숭숭한 요즘이지만
몇 명의 봉사자들과 파주 출소자시설로 go~!
가는날이 장날? 이라고 그날은 짙은 안개로 한치 앞도 분간
이 어려웠습니다.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는 상황...ㅠㅠ
1시간여 만에 도착한 출소자 시설!
그곳도 안개에 쌓여있었지만 따스한 봄내가 스물스물 나는
듯 포근했습니다.

원장님말씀에 의하면 올겨울엔 등유 값(도시가스가 들어오
지 않음)이 다른 해 기준 절반 정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이 겨울답지 않아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진 게 적은
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얼마나 좋은지..^^

가건물로 지어진 주방이 연탄보일러의 온기로 따뜻하게 채
워져 있었습니다.
작업장인 컨테이너 안도 작업하는 형제들의 미소도 따뜻했
습니다.

시설의 식구들은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젠 식구들 재범 우려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 같아요.

법무부가 발표한 범죄 재범률은 약 23%며, 이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은 1년에 약 2조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온전히 출소자들에게만 대출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
다고 하네요.

죄지은 이들을 왜 지원하느냐'라는 물음엔, "이들을 지원하
지 않아서 재범률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가 피해를 입는다.
지원 혜택은 결국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
니다. 출소자 지원, 그건 결국 사회 전체를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망의샘터도 지원을 멈출 수 없는 이유겠지요.
오늘 다녀오는 길이 짙은 안개로 위험한 질주였지만 마음만
은 포근한 봄 날과 같았습니다.

봉사자 서영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비상입니다. 박쥐로 인해 전파된다는데 박쥐는 여러개의 바이러스를 가지고도 잘견딘다는데 인체에는 그런 것들이 해가되어 죽음에까지 이른다니..., 자연의 섭리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생각하게 하네요.

처음에는 이름도 외우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세계를 비상상태로 만들고 있어요.

저희 소망의샘터 모든식구들과 후원자 선생님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길 간절히 바라며..., 사람 많은곳은 피하고 예방수칙도 잘지키고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샘터봉사자들은 당분간 계획했던 모든 봉사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기관마다 봄 나들이 계획으로 한껏 들떠 있었는데, 내막을 잘 모르는 아이들 설명을 해도 밖에 나가자고 졸라대네요.ㅠㅠ

박쥐로 인해 전파된다는데 박쥐는 여러개의 바이러스를 가지고도 잘견딘다는데 인체에는 그런 것들이 해가되어 죽음에까지 이른다니..., 자연의 섭리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생각하게 하네요.

지난 겨울은 큰 추위도없고 눈도 구경하기 힘들어 난방비는 많이 들지 않아 좋았지만 한편으론 눈도 보지못하고 지나간 겨울이 조금은 아쉬움이..^^

많이 추워도 우리 식구들이 생활하기가 힘들지만 춥고 눈도 필요한만큼 내려야 병충해도 막고 농사도 풍년이라고들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돌아 힘들게 하네요.

이 모든 것들도 잘 견디고 이기면 봄과같은 따뜻한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요~ㅎ

샘터 모든 식구들.후원자 선생님들~힘내시고 건강하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봉사자 / 박미영

지난가을 독거노인들과 인천대공원으로 나들이가서 어르신들과 "찰칵" 가고 싶은곳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리운 요즘입니다.





소망의샘터 각 시설 위치를 소개합니다.

제1기관 / (장애우시설) 사랑의집에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589-5번지



제2기관 / (출소자 및 부랑아시설) 파주소망의샘터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502-4



제3기관 / (근육병환우시설) 참조은친구

인천시 서구 가좌4동 혜동빌라 102호



TEL:(032)541-4737 / FAX(032)541-4738



1. 사/랑/의/손/길을 기다립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부모에게 조차 버려진 장애우들은 시설의 원장님, 사모님과 선생님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 전부인 장애우 아이들과, 늙고 병들어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누구도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 노후를 많이 힘겹고 외롭게 보내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받아주는 곳이 없어 재범을 되풀이 하는 출소자들과 그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 재범을 막아내려 애쓰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지병으로 사는게 고통인 이들에게 살맛나는 세상,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2. 소/망/의/샘/터 회/원이 되시면.

- 소망의샘터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 소망의샘터에 관련된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의 10%내에선 100%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www.ever.or.kr)을 통해 소망의샘터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 무의탁 노인
-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
- 보호자가 있으나 여러가지 형편상 위탁이 불가피 하신 분들은 (032)541-4737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입소를 도와드립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

저희 소망의샘터는 기부금단체 관계법령 법령 39 ① 1 마(기부금코드 41)에의거 지정기부금 발급기관으로 발급받은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기존 은행용으로 발급받은 것도 사용할 수 있음)로 로그인 하여 간편하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



후원문의 : (032)541-4737

<http://www.ever.or.kr>/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나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후 / 원 / 계 / 좌

국민 : 656501-01-250453

농협 : 387-01-011911

예금주 : 소망의샘터

또는  **NAVER** , **ZUM** 등 포털사이트 에서 소망의샘터  를 검색하세요.

2103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1번길 KT&G 408호(계산동 935-6)

TEL:(032)541-4737 / FAX(032)541-4738 / <http://www.ever.or.kr>